국민건강영양조사에 나타난 저소득층의 에너지 섭취실태와 국민 평균 에너지 섭취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식료품비 추정

노 민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심 재 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정 효 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 인 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류 정 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백 희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기초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01,357원, 그중 최저식료품비는 가정식 비용과 외식비를 합쳐 366,948원이었다. 이렇게 설정한 최저생계비는 전물량방식을 사용하여 최저식료품비 101개와 기타 품목 272개로 제한하여 구성한 마켓바스켓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의 적절한 섭취수준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가구들이 국민평균수준의 에너지 섭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료품비를 산출하여 최저생계비 산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제 섭취하고 있는 식품의 내용과 에너지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식료품비의 산출에는 통계청, 농수산물 무역정보, 농수산물 가격정보, 그리고 시장조사를 통한 식료품의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개인이 실제 지출하고 있는 한 달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식품섭취 구성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에너지 섭취량을 국민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 달 식료품비를 계산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4인 가구의 가족구성을 달리하였을 때 필요한 가구당 한 달 간 식료품비를 계산해보았다.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남성의 에너지 섭취량의 중앙값은 1,828kcal로 한 달 식료품비는 124,626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를 전체 남성 대상자들의 에너지 섭취량의 중앙값인 2,018kcal로 유지하기 위한 한달 식료품비는 140,988원으로 추정되었다.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여성의 경우는 에너지 섭취량의 중앙값이 1,553kcal이었으며 한 달 식료품비는 110,571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를 전체 여성 대상자들의 에너지 섭취량의 중앙값인 1,622kcal로 유지하기 위한 한달 식료품비는 115,484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가구의 구성을 달리하였을 때 30대 부부와 10세 이하의 두 자녀인 경우 한 달 식료품비는 496,638원, 40대 부부와 10대의 두 자녀인 경우는 545,278원, 50대 부부와 20대 두 자녀인 경우는 604,605원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원수가 같다하더라고 가구구성이 다를 경우에 소요되는 식료품비는 차이가 있었으며, 최저생계비 중 최저식료품비의 계산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